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영 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감정의 시각화를 통한
내면 공간의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한 정 희

감정의 시각화를 통한
내면 공간의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 중심으로 -

박 영 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한 정 희

인 준 서

한정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작업한 것을 바탕으로 감정의 시각화를 통한 내적 이미지를 표현한 작업들 중 본인의 석사 학위 청구 전 「감정 채집」에 전시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업내용과 표현형식을 분석한 것이다.

예술은 보이지 않는 본질을 찾아 분석하고 그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다. 정신적이고 창조적인 욕구를 자신의 감각활동을 통해 재창조하여 표출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나게 하여 내면세계를 이끌어낸다.

본 논문은 내적이미지가 표현된 결과물을 통해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내면의 숨겨진 자아를 바라보게 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심상으로 발전 하기 위한 과정들을 나열 하였다.

인간은 어릴 때의 경험이 내면의 가치나 삶을 판단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어릴 적 부모님의 존재는 구체적인 ‘타자’를 지칭하면서 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가치를 도출하게 된다. 삶의 무수한 경험과 생각들이 자신을 만든다는 점에서, 삶에서 마주치는 타인은 무척 중요하다. 본인에게 타자인 가족과 각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영향력은 삶에 대한 관점, 성격, 심리적 상태 구석구석에까지 이른다. 본인의 작업은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일기를 통해 타인과 자아에 대한 의문과 수많은 고통과 갈등들을 볼 수 있었다. 작업 또한 일기를 쓰는 것처럼 내면의 깊은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조용히 관찰하게 한다. 이처럼 본인에게 회화는 진솔한 내면의 고백이며 내면에 풀지 못한 주제들을 속 시원히 풀어 내어 관찰하는 장으로 개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공간인 것이다.

본 작업에서 표현된 주제는 내면의 잠재된 감정의 분출을 표현함으로써, 분

출된 감정의 모습을 자연의 형상들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자연의 형상들은 내적 풍경을 만드는데, 이는 온전히 내적인 소리에 귀 기울여 그 자연에서 관찰된 모습으로, 내적인 느낌을 자신의 예술의지와 독자적인 표현의지의 필연적인 선택을 통해 구성되고 표출된 세계인 것이다. 본인은 자신의 내적공간의 표현을 작품 활동을 통해 혼돈스런 감정과 우울, 불안을 극복하고 자기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작업을 통해 인식과 가치를 재해석하고 성숙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나는 작업을 할 때 느끼지 못했던 본인의 내면을 더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 계기로 긍정적인 내면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논문이 나에게 총망라해서 보게 된 계기였고 그 계기를 만나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작품 형성의 배경	3
1.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	3
2. 내면 공간	5
1) 심상	5
2) 일기; 영혼의 기록	7
III. 연구 작품 분석	12
1. 작품의 조형	12
1) 내면의 시각적 표현	12
2) 자연에서의 발견	16
2. 작품의 내용분석	21
1) 피해망상증; 타인의 시선에서의 존재	22
2) 내적풍경; 「감정채집」 전시를 바탕으로	27
i) 감정의 표현; 억압과 고통	29
ii) 긍정적인 심상을 통한 성장	39

IV. 결론 44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2013. 7. 26 일기 드로잉	8
[작품2] 2013. 6. 4 일기 드로잉	9
[작품3] 2013. 7. 17 일기드로잉	10
[작품4] 「오해의 덩어리들-드로잉」 종이에 수채, 색연필 31.0×42.6cm 2013	14
[작품5] 「그렇게 흘러가는 대화」 종이에 연필 43.3×32.5cm 2012	15
[작품6] 「타인에 대한 드로잉」 종이에 수채 43.3×32.5cm 2012	15
[작품7] 「그들의 행렬」 종이에 색연필 34.0×31.2cm 2013	15
[작품8] 「나만 다른 것 같아 보여」 종이에 색연필 43.3×32.5cm 2012	19
[작품9] 「팡 팡 팡 팡 팡」 종이에 연필 13.0×18.0cm 2012	20
[작품10] 「나무와 심상을 향한 드로잉」 종이에 오일바 13.0×18.0cm 2012	20
[작품11] 「나무에서 발견된 심상」 39.5×53.7cm 2013	21
[작품12] 「나무에서 발견된 심상」 39.5×53.7cm 2013	21
[작품13] 「피해망상-사라지는 얼굴」 캔버스의 유채 130.0×89.4cm 2010	24
[작품14] 「피해망상」 캔버스의 유채 53.0×65.0cm 2010	25
[작품15] 「피해망상」 캔버스의 유채 52.8×64.7cm 2010	25
[작품16] 「수치심」 캔버스의 유채 162.2×130.3cm 2011	26
[작품17] 「불뚱 떨어지는 밤」 캔버스의 유채 130.0×96.0cm 2011	27
[작품18] 「비명」 캔버스의 유채 56.7×93.3cm 2012	30
[작품19] 「두려움에 관한 드로잉」 종이에 수채, 콘테 21.0×29.0cm 2010	31
[작품20] 「불안에 관한 습작」 캔버스의 유채 44.7×36.0cm 2012	31
[작품21] 「어둠의 근원지」 캔버스의 유채 90.0×106.0cm 2012	33

[작품22]	「가뒤틀린 열정」 캔버스의 유채 130.0×161.4cm 2012	35
[작품23]	「미친개들」 캔버스의 유채 90.0×129.5cm 2012	37
[작품24]	「미친개」 캔버스의 유채 97.0×130.0cm 2012	37
[작품25]	「내안의 칼날들-2013.7.26 AM1:59」 캔버스의 유채 130.0×96.0cm 2013	39
[작품26]	「격려하는 너- 드로잉」 종이에 색연필 31.0×42.6cm 2013	40
[작품27]	「격려하는 너」 캔버스의 유채 130.0×130.0cm 2013	41
[작품28]	「달리는 사람들」 캔버스의 유채 161.2×130.0cm 2012	42
[작품29]	「오해의 덩어리」 캔버스의 유채 72.5×51.0cm 2013	43
[작품30]	「해소되다-2013.8.11 AM 00:34」 캔버스의 유채 161.0×130.0cm 2013	44
[사진1]	작품의 소재가 된 자연이미지	17
[사진2]	[작품29] 「오해의 덩어리」의 자연이미지	17
[사진3]	[작품28] 「달리는 사람들」의 타인을 연상시키는 자연이미지	18
[사진4]	[작품8] 「나만 다른 것 같아 보여」의 사진	19

I. 서론

나는 끊임없이 나에게 대한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찾길 원한다. 인간의 삶이란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장하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나’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과정들은 불안과 혼란 주기도 하고, 깊은 고통과 좌절을 직면하게 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깨달음과 희망을 보이게 한다. 나는 이러한 과정 속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은 자아를 찾아가고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중에서 스스로의 감정과 내면을 가장 순수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예술가는 정신적이고 창조적인 욕구를 자신의 감각활동을 통해 재창조하여 표출하면서 내면 세계를 이끌어낸다. 본인은 예술을 통해 모호한 감정을 표출시켜 자아를 표현하여 그 의미를 찾아가고 인간의 내면의 감정을 이미지를 통해 환기시키고자 한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사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에 관한 정체성을 획득하고 ‘나’라는 존재의식과 자의식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의식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주변사건들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이 된다. 인간은 주변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고 깨닫게 되며 타인의 평가를 인지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아를 형성시켜 나간다.

본 논문의 논제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을 경험 하게 되면서 그 감정들의 중첩된 심상을 통해 내적이미지가 표출되며, 본인의 심리적 상태와 상처, 불안이 드러난 세계를 바탕으로 내면을 탐구하고 자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본인의 작업은 구체적인 감정들을 드러내거나, 일상의 풍경 속에서 획득한 작가적 시선을 담아낸 일기형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개인의 내적 감수성이 피사체인 자연과 만나는 순간, 하나의 심상의 경험이 되는 과정을 밝히며 작품이 가지는 조형적 의미를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현된 내적풍경은 자기 인식의 한 방법으로서 본인의 감정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해 억압상태에 있는 내면을 자유롭게 하며, 작품 속에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와 스스로의 마음을 반영한 이미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인식이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개인이 느끼고 경험한 의식과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상태 알아보고, 심상과 일기를 통해서 내면의 모습을 도출하기까지 그 배경을 전개한다.

III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과 개인적인 내용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형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내면을 시각화하기 위해 표현된 방식을 분석하고 작품이 타인과 자아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개인적인 기억과 경험이 작품에 표현되어 본인에게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작업에 있어서 더욱 성숙하게 될 계기를 마련한다.

II. 작품 형성의 배경

1.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

인간은 자신 존재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자아정체성에 대해 고민한다. 자아(自我)는 “한 개인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나, 자기, 의식자가 다른 의식자 및 대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자를 칭하는 것, 자기 자신에 관한 각 개인의 의식, 또한 관념을 뜻한다. 자기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인간관, 세계관 등에 관한 총괄적인 것을 말한다.¹⁾

경험을 통해 개인은 상호작용과정을 거쳐 개별적 감정이 생긴다. 이렇게 생성된 감정은 개개인에게 특유의 성향이나 성격을 드러나게 하고 이를 통해 ‘나’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개인은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나’의 존재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일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본 자신을 알게 된다. 타자의 시선이 자기 자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의식과 몸을 가진 나라는 존재는 타자의 존재를 의식함으로써 정립되는 것이다. 즉 내가 타인을 보고 있는 것처럼 타인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나’는 자의식을 가진 주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²⁾

자아의식은 개인의 주체성 발달을 통해서 그 개인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데 개인의 주체의식은 타인과 나의 존재를 구별하면서 의식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형성된다. 이렇듯 타인을 통해 자아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반성적 사

1)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분석심리학의 탐구3, 한길사, 2002

2) 아서 단토, 『일상적인 것의 변용』 예술철학, 한길사 p.30

고를 한다고 보았다. 자아가 형성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은 자기 자신과 내면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기성찰능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능력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타자의 입장에서 보는 나의 모습, 타인의 인식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에 대한 나 자신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서 자아개념이 형성된다.³⁾

우리는 태어나서 바로 인격이 형성된다기보다 부모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더라도 인간은 사회 안에서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쳐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자아는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타자로부터 받게 되는 피드백 정보에 따라 우리의 자아도 변화할 수 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개념도 다른 사람의 인식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타자’의 시선은 우리의 자아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⁴⁾ 우리의 자아는 고립된 명상에서 형성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로소 형성된다는 것이다. 타자를 이해하는 행위를 통해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나의 욕망을 바라다 볼 수 있게 한다.

본인에게 타인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었다. 본인은 어릴 때의 경험이 내면의 가치나 삶을 판단하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릴 적 부모님의 존재는 구체적인 ‘타자’를 지칭하면서 그 타자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가치를 도출하게 된다. 삶의 무수한 경험과 생각들이 자신을 만든다는 점에서 삶에서 마주치는 타인은 무척 중요하다.

3) 송인섭, 『자아개념』 학지사, 2013 p.25- G. H. Mead.

4) 오창호, 『사회심리와 인간소외』, 푸른사상, 2005, p.65

2. 내면 공간

1) 심상

본인의 내적 풍경의 작업은 감정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감정은 마음의 언어이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소리이다. 감정은 의식하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는 마음의 동요, 또는 흥분의 전부이다. 이러한 감정의 표출은 타인에게 마음을 밝히는 일도 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 감정은 표출하고 의식 할 수는 있지만 그 본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또한 우리는 그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이 무기력하고 억압된 상태에서부터 자신이 해방됨을 느낀다.⁵⁾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의 감정들에 대한 탐험이자 어떤 목적을 향한 노력의 시작인 것이다. 본인의 작업은 감정을 분출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내적 이미지는 감정의 분출로만 그 표현 해낼 수 없다. 내적 이미지는 감정을 통해 의식하고 무의식속에 잠재 되어있는 내면상태를 통해 표현된다. 이러한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세계를 관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심상이다. 심상은 가장 기본적인 정신활동이며, 삶과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정신활동의 소산물이다.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으면 생각과 이미지가 마음에 나타난다. 과거의 있었던 사건이나 기억을 떠올리거나 미래의 상황을 상상 할 수 있으며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모습 등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생생하게 그릴 수 있다⁶⁾

최초의 인류나 원시인들이 눈을 감고 자연에 대해 갖게 된 자신의 공포, 경외감, 환희감, 무아지경 등을 체험하는 행위를 아마도 인간이 최초로 경험한 심상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심상은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

5) R. G.롤링우드, 『상상과 표현』, 고려원, p135

6) 최범식. 『심상치료의 이해 및 치료이론』, 시그마프레스, 2009, p53

나아가 인간의 마음 및 심리적 정신적 세계 등을 대변하는 현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심상은 정신적요인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개인의 억제된 유아기 시절부터 억제된 감정을 회복시키는 기능과 역할의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심상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기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 할 수 있으며⁷⁾ 한 개인이 평소 억압해온 감정을 스스로 노출하여 정서적 카타르시스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매개체로도 정의 할 수 있다.⁸⁾ 인간은 생을 사는 동안 자신의 정신활동을 무한히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심상은 곧 이들의 행위를 계속 반복한 결과 형성되고 축적된 정신활동이라 이해할 수 있다. 심상을 체험할 때 개인에 따라 깊은 감정, 내적 뜨거움, 마음의 정열, 강력한 느낌이 동반 체험될 수 있다. 이런 심상 체험 시 수반되는 이러한 정서적 현상은 곧 우리의 마음 및 내면세계에 있는 역동에너지의 움직임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심상은 이른바 정신적 에너지 및 역동 에너지가 수반된 역동적 내적현상인 것이다.

본인의 작업은 심상을 통해 드러나는 내적 풍경, 즉 내적인 본질에 형체를 부여하여 시각화하였다. 이 심상은 시각의 대상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와 일상에서 발견한 사물과 연결된다. 즉 그런 이미지들은 내적 심상에서 떨어져 나온 물리적인 영혼에 기억이미지로 남아있게 된다. 기억의 이미지는 하나의 경험이 되어 축적되며 본인의 현재경험에 과거의 수확과 함께 저장되고 화합되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7)최범식. 『심상치료의 이해 및 치료이론』, 시그마프레스, 2009 p55 -Achterberg,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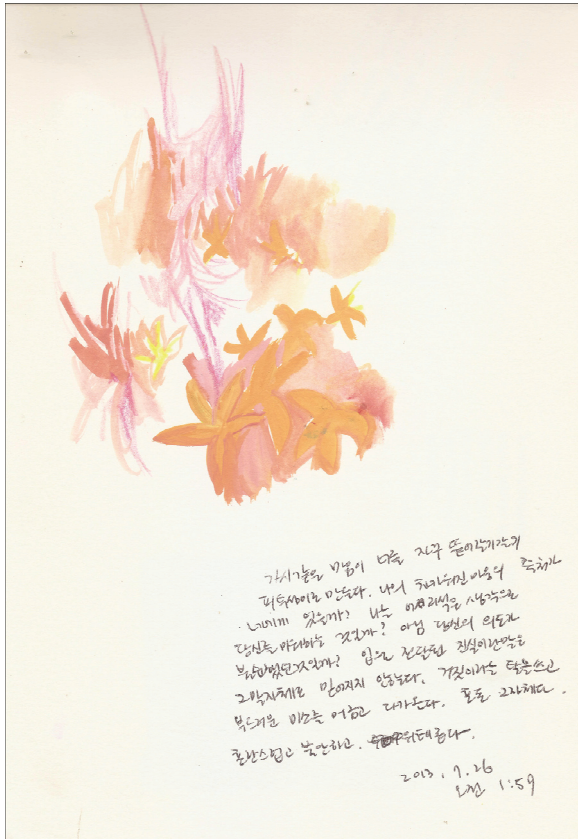
8)최범식. 『심상치료의 이해 및 치료이론』, 시그마프레스, 2009 p55 -Plutchik,1984

2) 일기; 영혼의 기록

일기는 자전적인 기록의 성격을 띤 본인의 진솔한 내면의 기록이며 매우 주관적이고 개성적이다. 일기는 주체적 인간으로서 눈으로 바라본 '오늘'을 기록하며 경험한 것들에 대한 흔적이다. 그 흔적방식은 다양하여 복합적으로 해석된다. 일기를 통해 하루하루의 경험과 시간이 쌓이며, 그 시간들의 중첩을 통해 변화하는 자아를 관찰할 수 있다. 일기는 내면세계 속에서 인식하는 것을 고찰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면의 진리나 내적인 저항을 미리 알려주며, 세계 속에서 자신의 시선을 알아 볼 수 있게 해준다. 일기는 단편적인 형식을 띠며 문학과는 달리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쓰는 사적인 글이기 때문에 솔직한 구성으로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 표현할 수 있다는 면에 의미가 있다. 일기는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들의 편린(片鱗)들을 맘 놓고 뽐어낼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내적 대화를 통해 본인만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작업은 일기처럼 자연스럽게 자신과 만나는 솔직한 공간으로써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공간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씌으로써 자신을 알아간다는 일기의 특징처럼 작업을 통해 솔직히 드러낸 감정은 자신 일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일기인 셈이다. 이처럼 본인의 드로잉은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은 채 남겨지는 하루하루의 제스처들이인 것이다. 그리고 하루하루 일기 속에는 그날마다의 주된 소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기 속 드로잉은 그날의 느낌과 자신의 심상을 활용해서 표현한다. 일기의 내용은 구체적인 하루를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본인의 감정에 입각하여 그 찰나의 감정을 붙잡아 기록해놓은 것이다. 감정은 아주 일시적이기 때문에 일기에 연상되는 이미지를 빠르게 그리는 방식으로 드로잉을 기록해 놓

는다. 작품에 표현된 개체들은 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찰나의 경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기를 기초로 하여 다시 재구성한다.



가시 같은 마음이 너를 뜯어
 갈기갈기 피투성이로 만든다.
 나의 차가워진 마음의 출처가
 너에게 있을까? 나의 어리석
 은 생각으로 당신을 미워하는
 것일까? 아님 당신의 의도가
 불순한 것일까? 입으로 전달
 된 진실이란 말은 그자체로 믿
 어지지 않는다. 거짓이라는 탈
 을 쓰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
 고 다가온다. 혼돈 그 자체다.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위태롭
 다. - 2013. 7. 26 오전 1:59

[작품1] 2013. 7. 26 AM1:59 일기 드
 로잉

[작품1]은 [작품25] 내안의 칼날들 - 2013.7.26 AM1:59 에 관한 일기이다. 상처와 관련된 타인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그 감정이 자신에게 향하고 감정으로 인해 자신이 더 아픔을 느낀다. 지나간 과거의 감정을 자꾸 들추어 내 자신이 더 상처를 낸다는 상황의 그림이다. 상처를 내는 자도 상처를 치료 할 수 있는 자도 오로지 나에게 달려있다.

일기 속 드로잉은 내면의 심상을 서술하고 빠른 시간 안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심상을 구체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25]는

일기를 참고로 더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을 거쳐 표현한 작품이다. 일기는 즉흥적인 간결한 그림으로 그 당시의 느낌을 잡아낸다. 그곳엔 의미가 존재하는 것도 있고, 존재하지 않고 그 꿈틀거리는 어떤 느낌만을 잡아 표현한 것도 있다. 본인의 작업은 이렇게 표현된 일기를 통해 그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드러난 감정과 외부세계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적이미지를 구성해간다.



[작품2] 2013. 6. 4 일기 드로잉

소란스럽게 움직이던 그것으로 집중한다. 시선이 흔들거린다. 눈은 그것을 응시 할 수 있지만 생각은 산만하기 그지없다.

2013. 6. 14



절절 해오는, 적막함,
 자유로움의 시간,
 모든 것을 지나 재가 되어
 날아간다. 꿈틀대는
 그 어떤 것들을 날려 보낸다.
 툭툭 때어 내어
 훨훨. 훌훌 날려 보낸다.
 내 모습의 한 자락을.

2013. 7. 17. pm7:00

[작품3] 2013. 7. 17 일기 드로잉

이미 쓰여진 일기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에 상태를 유추해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림은 마치 그 내용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풍경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듯이 풀어내고 있다. 하루하루의 일기는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있는 지나간 일들을 마음속에 담아내어 간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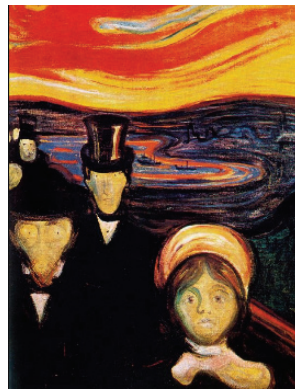
일기적인 작업 형식은 몽크⁹⁾의 작업에서도 볼 수 있다. 자신이 경험과 어린 시절 겪었던 가족의 죽음으로 기인한 감정을 자신의 그림에 그대로 투영 시킴으로써 본인의 불안을 직면하고 해소하고자했다. 이러한 그의 작업방식은 나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몽크는 경험과 내면의 감정을 솔직하게 담으려고 했고 내면세계에 대한 탐구, 잠재의식의 관한 관심,

9) 에드바르트 몽크 (Edvard Munch 1863-1944) 는 노르웨이의 뢰텐(Loten)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다. 군의관인 아버지와 이직적이고 자상한 어머니를 둔 몽크는 누나와 3명의 동생들 사이에서 자랐다. 그가 잘 따랐던 누나 소피에(Sophie)와 몽크는 어머니의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아 어릴 적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한다. 몽크가 5세 되던 해인 1868년에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아이들은 이모인 카렌과 아버지를 돌보게 되었고, 누나인 소피는 역시 같은 병으로 1877년에 사망한다.

자아에 대한 발견 등의 주제를 통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자아를 연구했던 작가이다. 몽크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 시각과 개인적 경험의 기억을 보편적인 차원으로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그에게서 예술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예술은 다양한 영혼을 가로질러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마음을 정화해주는 도구였다. 몽크의 작품은 일기장과 같다. 모든 작품은 엄청난 고백의 편린들이다.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여 인생이라는 무상하고 특별한 실험실에서 영원한 진리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였다.¹⁰⁾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고 마음이 진정시키는 평화가 나를 감싸곤 했네. 마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악한 것들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처럼…….”¹¹⁾

이와 같은 몽크의 말처럼 몽크의 작업들은 영혼의 해부처럼 자신의 조각들에 대한 표현들이고 고백이자 자신의 성장에 대한 예술적 연장이었다. 예술은 바로 그 자신을 분석하고 숙고해볼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의 중요한 마음치유이었던 것이다.



[그림도판1] 에드바르 몽크, <도로위에 내린 눈>, Oil on canvas, 80 x 100cm, 몽크미술관, 1906

[그림도판2] 에드바르 몽크, <불안[Anxiety]>, Oil on canvas, 94 x 73cm, 몽크미술관, 1894

10) 홍선미, 마음치유의 탐색적 연구 : 마음의 양태들과 Le Père의 이미지의 연구. 제66집 (2012년 봄) pp.157-192, 2012

11) 룬프 스테너센, 에드바르드 몽크, 눈빛, 2003

Ⅲ. 연구 작품 분석

1. 작품의 조형

1) 내면 시각적 표현

작품은 감정을 통해 드러난 내면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구성하여 캔버스에 상징적인 내면의 세계를 재현한 것이다. 작품의 시각적인 형상은 감정의 실체를 통한 역동적 표현과 주관적인 느낌으로 표현된다. 내면이라는 모호한 공간에 표현에 있어서 본인은 삶이라는 그 공허하게 펼쳐진 우주 속에서 몰두하여 깨닫는 경험 감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사람과 만나고 난 뒤 찾아오는 빈 시간 속 캄캄하고 조용한 길을 걸으며, 현실의 공간에서 들리는 소음들을 외면한 채 나의 감각들과 기억들에 대해 주목한다. 그리고 그 안에 내재 되어있는 수많은 느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 깊은 각인을 남기고 또 다시 기억 속으로 사라지곤 한다. 이러한 중첩된 수많은 기억들, 감정들은 복합적인 심상들의 모습으로 환기시켜 내적 공간속에서 구성된다.

그림속의 감정의 느낌을 주는데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은 감정의 상징적인 색들이다. 그림에 주된 배경은 밤풍경의 느낌이 강하다. 어둠이 주는 미지의 세계나 공허함에서 비롯된 듯하다. 본인은 내적 심상이 가능한 시간이 짙은 밤 시간 때였고, 어두운 밤이야 말로 꼭꼭 숨어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듣기에 좋은 시간이었다. 낮에는 그 형태들이 모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밤에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이 세상에 대해 의문으로 가득했던 나의 내면과 같다고 느꼈기 때문

이다.

감정에 대한 주된 표현은 형상뿐만 아니라 색채의 표현에 그 형질이 들어난다. 색채는 온도나 소리 같은 감각적인 경험을 연상 시킬 뿐만 아니라 색과 관련한 과거의 강렬한 기억 또한 떠오르게 한다. 본인은 색채의 이러한 특성이 정서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색을 지정하는데 감각적인 면을 많이 참고한다. 분노, 열정, 갈등, 오해의 감정은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뜨거움이라는 온도가 느껴지고 냉철함, 억압, 불안은 차가운 느낌을 연상시킨다. 온도의 차이는 붉은 계열과 푸른 계열의 색으로 표현된 한다. 그림에서 나타낸 색은 내면 안에서 보색으로 배치해 개인의 감정이 대립되는 것을 표현하였고 노란색으로 표현된 빛과 손, 달리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색은 구성에 따라 감정의 미묘한 선까지 느끼게 한다. 색들이 구성안에 부딪히고 공존하면서 그 변화들은 작은 감정 선까지 느끼게 한다. 극단적인 색 배열은 그 온도나 감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작업의 방식은 조형적으로 단순화된 형태로 표현하고 의미의 간결성을 강조하기 위해 간결화 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간결화 하는 과정에서 추상적 형태로 발현된다. 이처럼 형태는 불분명하게 처리되어 일종의 환영이나 비실체적인 이미지처럼 보이게 된다. 그림에 경험한 감각과 정서를 시각화하려는 나의 작업은 현실에 일상적 사물의 익숙한 면을 색과 형태의 변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내적인 면을 실제화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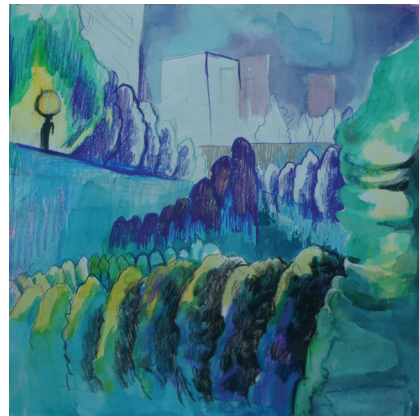


[작품4] 「오해의 덩어리들-드로잉」
종이에 수채, 색연필 31.0×42.6cm 2013

[작품4]는 연속되는 나무 이미지에서 발견된 심상이다. 내적 갈등들을 시각화한 것이다.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갈등의 고리들이 중첩되면 한 사람이라는 혹은 타인이 되었든 다수가 되었든 아님 '나'에 대한 것이든 많은 오해를 만들어 본질을 왜곡시킨다. 폭발적인 형태의 나무 이미지는 갈등 속 복합적인 감정의 표출이다. 감정의 갈등이 쌓이다 보면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회복하지 못하면 수많은 갈등의 연결되어 장대한 연기를 만들어낸다.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작용을 표현하기위해 반추상으로 표현한다.



[작품5] 「그렇게 흘러가는 대화」 종이에 연필 43.3×32.5cm 2012



[좌][작품6] 「타인에 대한 드로잉」 종이에 수채 43.3×32.5cm 2012

[우][작품7] 「그들의 행렬」 종이에 색연필 34.0×31.2cm 2013

[작품5], [작품6], [작품7]은 타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다. 이와 같이 타인을 덩어리로 표현해내 그 상황 속에서 개체와 나와 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려 했다. 여기서 표현된 타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정확히 묘사할 수 없는 이유는 본인이 타인의 존재를 모호한 감정에 비유해서 다소 차갑고 알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인이라는 개체에 대한 의문들은 풀지 못한 상태이다. '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무리지어 표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타인은 사회나 단체 같은 성격을 띤 무리라는 의미에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성격이 드러나 있지 않는 타인에 대한 표현은 '나' 이외에 타인이라는 점에서 '나'에게 더 의미가 치중되어 있는 것이다.

[작품28]에서 구체적인 사람의 표현으로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볼 수 있다. 덩어리로 표현된 타인의 모습이 역동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됨으로써 타인의 존재에 대해 구체적인 의미를 들 여지를 열어두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본인의 인식에서 타인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를 심리적인 변화를 엿 볼 수 있다.

2) 자연에서의 발견



[좌][사진1] 작품의 소재가 된 자연이미지

[우][사진2] [작품29] 「오해의 덩어리」의 자연이미지

자연의 풍경을 바라보면 그 안에 감정이나 내적 움직임들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어떤 사물 안에서 느낄 수 없는 형상의 형태에 집중 시킨다. 본인의 작업의 이미지는 풍경의 구체적인 형상 안에서 나의 내적감정이 투영되어 그 문제들을 발견 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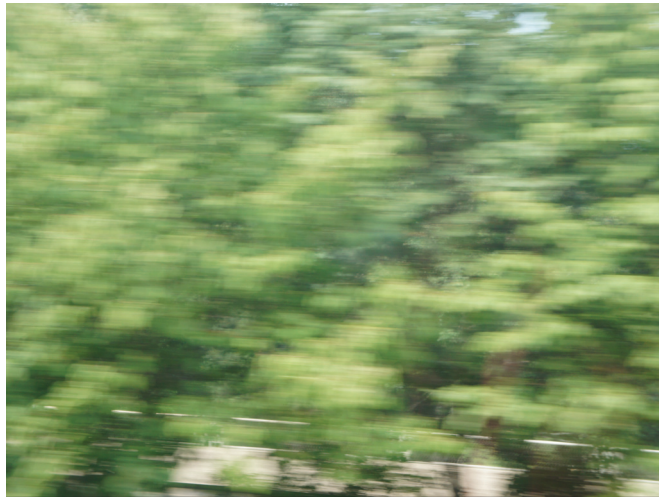
자연의 모습들은 고정되어진 상이 없고 자유분방하다. 그것은 내면에서의 느낌처럼 불규칙적인 감정의 움직임처럼 보이며 이것이 제각기 공존하여 조화롭게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자연이라는 소재는 형태를 통해서 시처럼 영혼의 뿌리를 두고 있는 정신적 사상, 개념들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정신적 개념들은 현실 너머의 비본질적인 성질들이 공간적 관계로 남을 뿐이다. 자연은 절대자로부터 직접 흘러나온 필연적 형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영혼의 표현으로 그 모습을 산출하려는 목적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¹²⁾ 자연에서 획득한 형상은 추상적인 표상으로 비 물질화한 대상이 떠오르고 이 대상은 곧바로 마음속에서 진동을 야기 시킨다.

본인의 작업을 보면 자연의 실체와 내적 실체의 결합을 시도하려했음을 보

12) F.W.J.셀링, 『조형미술과 자연의 관계』, 책세상, 2002

여준다. 자연을 자신의 심리세계에 대한 상관물로 형상화하였다.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물 나무나 꽃들에게 숨 쉬듯 살아있는 강렬한 생명력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을 다양한 시점으로 관찰하다 보면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생명력이 내제된 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사진3] [작품28] 「달리는 사람들」의 타인을 연상시키는 자연이미지

[사진3]은 움직이는 풀들의 빛과 어둠으로 생긴 형태 안에서 마치 사람의 형상들을 발견 할 수 있는데, 그 형상들은 내적인 범위 안에서 본인이 느끼는 타인의 모습을 투영 시키고 있다. 발견된 이미지는 본인이 잊고 있었던 무의식적인 기억 속에 인간의 모습을 투영시킨다. 본인은 이 형상을 통해 “우리는 함께 이 험한 세상을 바쁘게 달리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도출해 내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대상의 외형적으로의 관찰은 내면적 정신적으로 해석되는 본인의 이야기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낸 자연에 대한 개인적 시선은 본인이 찾고 싶어 하는 내면의 가치를 발견해 낼 수 있다. 본인이 선택한 풍경사진 안에서의 시선은 그 속에서 자연의 관조가 아닌 내적인 답을 찾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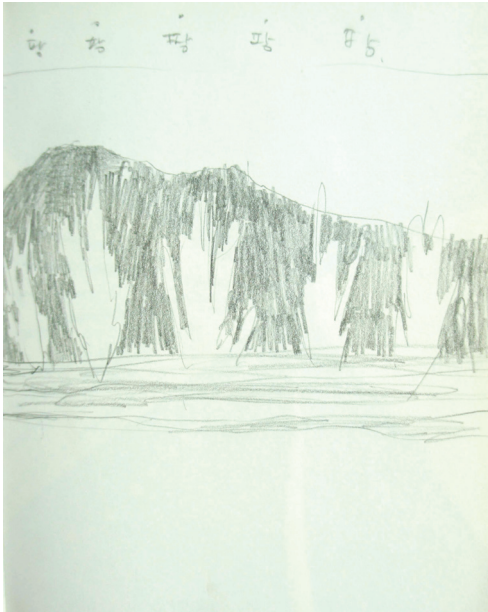


[사진4] [작품8] 「나만 다른 것 같아 보여」의 사진



[작품8] 「나만 다른 것 같아 보여」 종이에 색연필 43.3×32.5cm 2012

[사진4]에서 획득한 자연의 형상 속에서 [작품8]로 개인이 느꼈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표현하게 된다. 그림에서 표현된 것은 다르다는 말에 주목한다.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이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자신의 길을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좌][작품9] 「광 광 광 광 광」 종이에 연필 13.0×18.0cm 2012



[우][작품10] 「나무와 심상을 향한 드로잉」 종이에 오일스틱 13.0×18.0cm 2012

나무가 내게 말을 걸어온다.

직선으로 된 벽 앞에 서있는 나무는 이성과 감성을 구별한 듯하다

폭죽처럼 터지듯 호소하는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조용한 내 세상에 속으로 들어와 흥미롭게 수다를 떨어댄다.

작업노트 중에서

본인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풍경을 관조하는 행동이 아니다. 풍경 속에서 말하는 조형적 언어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다. 풍경 안에 개체들은 저마다 형태 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포즈는 내적인 심상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에 관해서는 극히 주관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내적인 경험과 반응들이 무의식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이다.



[좌][작품11] 「나무에서 발견된 심상」 39.5×53.7cm 2013



[우][작품12] 「나무에서 발견된 심상」 39.5×53.7cm 2013

감정과 심상은 자연을 끌어들이며 자연으로 하여금 심상과 정신에게 실재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자연이라는 실체에 거리를 두며 온전히 내적인 소리에 귀 기울여 시각적으로 그 형상을 찾는다.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여 묘사하기보다는 그 느낌만 주어 거리감을 유지한다. 이러한 자연과의 거리유지는 개념을 스스로 창조적인 힘에 이르도록 끌어올리고 또한 이 힘을 정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작품11], [작품12]는 사람을 통해 본 내적에너지를 나무를 통해 본 이미지다. 그 내적인 이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

2. 작품의 내용 분석

본인은 나 이외의 것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을 제대로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작업은 내면에 잠재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나게 하며 개인의 경험과 기억 또한 반영한다. 회화는 진솔한 내면의 고백이며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지각하는 가는 본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일기적 표현이다.

작품에서 심상의 표상은 무심히 놓아진 풍경, 즉 의미 없는 밖의 세상을 통해서 찾는다. 그것은 즉 구체적인 설명할 수 없는 추상적인 느낌과 가까운 형태들일 것이다. 내면세계를 조금이나마 도달하려면 감정의 역동적 에너지에 집중해야한다. 그 에너지의 모습은 단순한 표상들로 현상적 모습일 것이다. 일상에서 나 아닌 다른 존재와의 부딪침은 수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감정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불안, 두려움, 염려, 죄책감, 열등감, 수치심, 분노로 드러난다.

본인은 이러한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시작에는 늘 타인과의 경험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였다.

타인이라 함은 가족, 친구, 그 외 주변에 있는 본인에게 주체적인 사람에 한해서 이다. 어린 시절 무의식적으로 받은 부모의 영향과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부정될 때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고 그럴 경우 피해의식과 같은 정서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의한 정서적인 불만족이 내적으로 축척되어 만성적인 두려움, 염려, 혼돈, 공허함,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된다.

1) 피해망상증; 타인의 시선에서의 존재

본인이 타인과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을 입학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대학원을 오기 전 4년 동안 공부하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공간으로 오게 되었다. 4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던 사람들과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바뀐 환경은 나에게 정체성에 혼란을 주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그 곳은 그 동안의 나의 역사가 사라지는 느낌을 가져왔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본인에게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했다. 짧은 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 스스로가 소개해야하는 상황에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타인과 부딪혀 오면서 형성된 것이었고 말로 본인을 설명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그 동안 누구였으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된 계기였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을 멀리하게 되었고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왔다. 그 당시 주체인 '나'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이후, 나는 누구였는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낼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나의 존재는 늘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타인의 인식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사실은 본인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타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위협하게 느껴졌다. 외부 객체 안에서 '나'를 인식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로 증명해 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작품13] 「피해망상-사라지는 얼굴」 캔버스의 유채 130.0×89.4cm 2010

타인을 통해 평가되는 모습은 늘 같은 것이 아니었다. 본인의 행동과 그 상황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그 평가는 달라지고 타인이 바뀔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는 아주 주관적인 평가들이었다. [작품13]은 자아가 고통 받는 것은 타인의 왜곡된 시선 때문이고 이러한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바라본 '나'라는 존재가 사라짐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의 그림이다.



[작품14] 「피해망상」 캔버스의 유채 53.0×65.0cm 2010

[작품15] 「피해망상」 캔버스의 유채 52.8×64.7cm 2010

나의 존재가 타인이 바깥에 따라 달라지고 달리 해석되어지는 것 아주 단적인 것들이었다. 그것들로 나를 판단한다는 것은 많은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타인의 시선들은 마치 나를 직접적으로 해치진 않더라도 본질이 사라지게 하는 존재들이라 판단했다. 그러한 생각들은 스스로를 그 시선들 속에 가둬두게 된다. 시간이 지나 불안과 피로움이 찾아왔고, 그것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억압들이었다. 그 생각 때문에 그때 당시 본인은 의식에서 존재가 지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타인의 평가들 속에서 주체적인 ‘나’가 사라지면서 자존감도 같이 저하되고 있었다.



[작품16] 「수치심」 캔버스의 유채 162.2×130.3cm 2011

타인을 통한 혼란은 [작품16]에서 드러난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해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추측하는 것으로 사회적 감정의 한 형태로 개인적 심리의 내적세계와 사회적 관계의 상호 작용적 세계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관념은 외적규범에 대한 집착이 갖는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작품16]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었던 내적인 상황에서 구상된다. 자아가 사라짐에 대한 문제는 주체인 나조차도 나를 평가하기 시작한다. 나를 타인의 시점에서 타인의 모습들을 거울삼아 평가하기 시작했다.



[작품17] 「불뚱 떨어지는 밤」 캔버스의 유채 130.0×96.0cm 2011

자아가 사라짐을 느끼고 난후 어떤 일이건 소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남들과 이야기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했던 것 같다. 거짓으로 가장된 가면을 쓴 채 행동하던 날들이 많아지면서 내면의 분노나 화 같은 감정들은 표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방황했던 것 같다.

[작품17]은 내면의 불안에 대한 표출되지 못한 감정들의 움직임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타인을 의식하는 개인의 문제가 투영되었음을 드러낸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난후 내면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의 시작은 내적표현을 통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타인과의 일방적인 방향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로서 가기 위한 시작이었다.

2) 내적풍경; 「감정채집」 전시를 바탕으로

풍경은 자연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 한 시대나 한 개인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결과물로서 현대미술에서 끊임없이 재 탐색되고 있는 영역이다. 오랜 역사 속 풍경에 대한 인식은 '차경' 즉 펼쳐진 공간속의 광경을 주체의 의도에 따라 선별하여 편집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풍경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현실 자체가 아닌 표현 아래 감추어진 실재를 파악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으로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의 메타포로서 예술가들에게 인식되어져 왔다.

과거의 풍경화가 자연을 인식하는 차원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산물이었던 반면, 나의 작업은 자신이 획득한, 자신이 바라보았던 자연을 마음속으로 재 해석한 현실의 모습이다. 이미지들의 내용은 그것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자연풍경에서 발견된 그것들은 그때의 심적 상황으로 전의시킨다. 그것은 풍경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되며 그 당시 본인이 사회를 보는 시각과 관점이 축약되어진 산물인 셈이다. 기존에 있는 자연 속에 상상력을 넣어 의미 있는 풍경과 찰나로 만들어 풍경이라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 심리적 현상으로 해체되고 재구성한다. 재구성된 풍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심리적 변화, 갈등, 그리고 감정적 순환을 반영한다.

「감정채집」 전시에서 드러난 감정들의 복합체는 모두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고찰들이다. 수많은 감정들 가운데에서 작업에 반영된 감정들이 발현된 계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본인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본인의 작업은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기 위해 감정의 복합체들을 언급함으로써 상황들을 직시하고 성찰해가는 과정인 것이다. 본인은 주관적으로 축척된 경험에 몰입하여 내면의 이상을 자연 형태에서 빌려와 재구성 한다. 내적 풍경에서의 자연의 형태미는 인간 내면에 공통적으로 자리한 서정적인 감흥을

주는 대상이 된다. 내적상태가 자연적 형상으로 하여금 실재성을 부여받게 된다. 내적풍경은 단순한 재현이 아닌 자연을 통해 느끼고 감동된 느낌을 자신의 예술의지와 독자적인 표현의지의 필연적인 선택을 통해 구성되고 표출된 세계이다.

본인이 감정을 통한 심적 풍경을 구성해 내는 것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의도적으로 내재화시킴으로써 소통을 하여 그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내면에 쌓여 풀지 못한 주제들을 속 시원히 풀어내어 관찰하는 장으로 회화를 그리고 있다. 회화는 본인에게 있어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필사적인 몸부림 일지도 모른다.

i) 감정의 표현; 억압과 고통

작업은 특정 날짜의 일기 내용에 의해 시작된다. 표출되지 못한 감정들은 일기 속에서 기록되어 무의식속에 싸여진다. 우리들의 불안한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묘한 감정들로 기억된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내면에서 분출되지 못한 채 억압되어 고통 받는다. 현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성숙이라는 제약으로 분출되지 못한 내면의 억압된 감정들이 거절당함으로써 상실감 또한 유발된다.

본인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고통을 받아왔다. 그리고 내면에 쌓여있는 억압들을 풀어내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억압된 감정들을 회화를 통해 분출함으로써 불안한 감정들을 인지하고 털어내고자 한다.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다.
닭살이 서고, 살들을 벗겨내어
벌거벗진,
소리를 지르며 나는 질척거리
는 살구덩이 속에 있는 듯하
다

일기 중에

[작품18] 「비명」 캔버스의 유채
56.7×93.3cm 2012

[작품18]을 보면 본인은 억눌린 감정의 분출된 에너지의 형상으로 표현하여 내적인 모습을 표현하려 하였다. 감정의 분출은 억압받아오던 감정의 움직임이며 그 형상을 바라봄으로써 본인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내적 갈등은 자신의 한계에서 시작된다. 그 한계들은 나약함, 불편한 감정, 열등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18]은 지나온 시간, 타인의 시선을 통해 억눌린 자아의 목소리이고 본인이 느끼는 소멸에 대한 공포와 내적인 상실감 등이 만들어낸 형상이다. 곧게 뻗어 삐죽삐죽 서는 듯 표현들로 하여금 청각적인 느낌으로 드러낸다.



[작품19] 「두려움에 관한 드로잉」 종이에 수채, 콘테 21.0×29.0cm 2010



[작품20] 「불안에 관한 습작」 캔버스의 유채 44.7×36.0cm 2012

[작품19], [작품20]은 그동안 쌓여있던 불안과 두려움에 관한 그림이다. 감정은 마음에서 재생된 일종의 경험적 그림자이며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심상은 과거의 경험들의 흔적들과 의식들이 연결되면서 일어나게 된다. 감정의 표출을 통해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은 불안과 두려움, 억압된 감정들이다.

본인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미지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점씩 작품을 진행해 갈수록 연속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고 이것이 감정의 분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감정의 분출은 마음의 목소리처럼 느껴졌고 타인의 목소리 대신 본인의 내면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그 결과 오로지 나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이미지들은 더욱더 많은 빛을 내었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들이 모두 나 자신이고 내가 주체가 되어 판단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작품21] 「어둠의 근원지」 캔버스의 유채 90.0×106.0cm 20122

27살, 내 마음과 직면하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난 상처가 깊어서 아
묻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왜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가.

2012년 8월, 일기 중에서…….

[작품21]을 통해서도 내면의 억압의 존재, 주눅 들어있는 내면을 확인한다. 상처와 갈등을 회피하였던 내면의 괴로움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보면 회피하는 행동은 미해결과제에 직면하거나 미해결 상황과 연관된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런 감정, 불안, 슬픔, 죄의식, 기타 불안정한 감정을 직면하거나 충분히 체험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¹³⁾ 관계에서의 불안정한 억압들을 지난 기억에 의해 또 다시 경험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억압의 도구는 과거의 관계의 부정적인 기억들의 작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회피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이고 외적인 방어이다.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유도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 내면의 아픔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면서 해소나가 회복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주체적인 나로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3) 김정규, 『게슈탈트 심리치료』, 학지사, 1995, p.18~20



[작품22] 「가뒤편 열정」 캔버스의 유채 130.0×161.4cm 2012

나를 가뒤편 두려하는 억압들 여린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은 어릴 적
미성숙한 경험들이 현재 마음속으로 드리워진다.

그것은 세상 밖으로 나오길 희망하는 자에게 사춘기의 열병과도 같았다.

나의 내면에 감추어진 개별적 감성들, 감정들은 때론 내가 모르는 생각과
사상까지도 드러낸다. 그런 과거의 감정들은 지금 나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
는데 그럴 때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작업 노트 중에서

[작품22] 주체하는 자로서 우리는 도덕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를 억압시킨다. 하지만 타인에 의해서 욕망이 점점커지며, 내적인 욕망으로의 자아와, 관계의 실패에서 나온 억압적 자아와의 충돌하게 된다. 능동적인 움직임에 의해 감정이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타인을 거울삼아 들어난 욕망이 욕망의 덩어리로 나타나고 있다.

[작품22]에 드러난 열망은 스스로의 억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다, 앞으로 벽으로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스스로 벽으로 가뒀 욕망덩어리들이 나의 마음 안에서 정지 상태로 있는 모습이다. [작품22]는 자신이 만든 내적 억압이 스스로 정지 상태로 만들어 자유로이 생각 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것이다.



[좌][작품23] 「미친개들」 캔버스의 유채 90.0×129.5cm 2012



[우][작품24] 「미친개」 캔버스의 유채 97.0×130.0cm 2012

소란스런 목소리. 나를 죄어오는 부정적인 낮가림, 거부하고 싶은, 낯선, 이질적인, 소란스러움, 모호하게, 내목소리를 지우는, 다른 개성의 침범, 소통할 수 없는, 개소리, 멍멍멍으로 해석되는 어떤 것. 서로 물고 뜯기는 현실에 대한 반영이다.

그들은 미친 것 같다. 미친개처럼 짚어 댄다.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러워 나까지도 미쳐 버릴 것 같다. 애정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 어렵고 눈치가 보인다. 현기증이 났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미치광이처럼 춤을 추고 나니 나는 너무 행복했다. 서로를 향해 소리 지르는 행동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미친개에 관한 설명」 작업 노트 중에서

[작품23]을 보면 타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본인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그것은 무수히 많은 경험들이 축적된 결과들일 것이다.

타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불안의 감정은 회복되지 못한 갈등들에 대해 우리는 서로 억지로 이해했다 말하지만 다시 이해하지 못할 행동으로 서로를 마주한다. 이어가지 못하는 대화는 아마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인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에 관한 말들만 늘어놓는 대화는 소통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개가 짚어대듯 각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타인과 본인에 대한 생각들 속에 어릴 적 기억의 몇 개의 편린들이 있다. 그것은 수많은 외로움과 부정적인 생각들이다. 본인의 마음속에서 타인들을 거부하는 마음이 생겼고 삶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지만 생각들은 늘 부정적인 곳을 향하여 존재에 대한 허망함으로 전의되었다.

그 시초가 된 것이 어느 때인지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감정들이 있다. 나의 행동들을 부정하는 시선, 그리고 본인을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시켜 버린 타인의 얼굴들, 감정의 위안이나 편만한 인식이 될 만한 것은 현실 어디에도 없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이성적인 눈도 없었다. 본인에게 타인은 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외로움으로 찾아오는 타인에 대한 갈망과, 갈등의 존재인 타인의 두려움은 인식 속에서 충돌되었다.

두 번째 기억은 어릴 적 어두운 방에서 혼자 울었던 경험에 대한 기억들이다. 성인이 된 후에 혼자 남겨진 집에 있다 보면, 어릴 때에 각종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시 엄습해온다. 그때의 감정들의 기억은 현재 상황 속에서 다시 재현되어 현재의 경험이 된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상징화 시켜 버린 것이다.

크진 작던 관계에서 불안을 느꼈던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감정들이 되살아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식은땀이 나고 집중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들은 점차적으로 반경을 넓혀나가 특별히 본인이 불안을 느끼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상 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떠올리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린다.



[작품25] 「내안의 칼날들-2013.7.26 AM1:59」 캔버스의 유채 130.0×96.0cm 2013

[작품25]에 나타난 형상도 그 불안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감정을 점점 더 극한까지 몰아 갈 때가 있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경험들이 불안을 조성하게 하고 그 갈등들이 되풀이 되었다. 그것은 어둡지 않을 상황도 미리 불안하게 하여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

ii) 긍정적인 심상을 통한 성장

본인에게 작품 활동은 단순히 배설된 내적문제의 결과물이 아니라 혼돈스런 감정과 우울, 불안을 극복하고 자기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생각과 감정,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미술활동은 언어구조와 달리 그림 안에서 상반된 요소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진다. 미술은 화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데 미술의 이러한 능력은 갈등의 경험과 감정을 종합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인은 작품을 통해서 감정을 발산 시키고, 나아가 좋지 않았던 감정들을 그려내면서 회복한다. 이러한 경험을 심리학 용어로 순화, 정화를 뜻하는 카타르시스(감정정화)라고 한다.¹⁴⁾ 회복과 치유의 관점에서 이것은 고통을 덜기위해 감정을 방출하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들 안에서 본인을 되돌아보고 성찰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내가 가는 길에
박수를 쳐주는 이,
응원을 하는 이,
빛을 밝혀 주려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2.10.28 일기 중에서



[작품26] 「걱려하는 너- 드로잉」

종이에 색연필 31.0×42.6cm 2013

14) 이모영, 『미술의 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지각적 경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2009



[작품27] 「걱려하는 너」 캔버스의 유채 130.0×130.0cm 2013

풍경 안에 있는 풀과 나무, 자연의 모든 움직임들은 삶과 마찬가지로 다채롭고 불규칙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들 속에서도 규칙과 반복이 존재한다. 그 모습들의 형태나 구성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나 내적으로 구분지어지는 모습들이 비춰지기도 한다.

[작품27]을 보면 수많은 손이 빛나고 있다 이것은 인식 안에서 건 타인이 되었건 갈등의 해결로 인해 다시 힘차게 살고자하는 내적 풍요로움을 드러내었다. 우리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작품28] 「달리는 사람들」 캔버스의 유채 161.2×130.0cm 2012

그 모습들은 하나의 형식이나 구성으로 보이게 되며 한 개인 개인의 형식적인 구성으로 보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구조가 눈으로 읽혀지고 그 구조적인 모습 안에 모호한 구성들은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감정들로 얽여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개개인의 구조는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사는 것처럼 무언의 의식들로 연결된 것이 아닐까.

우리는 개인의 환경에 귀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감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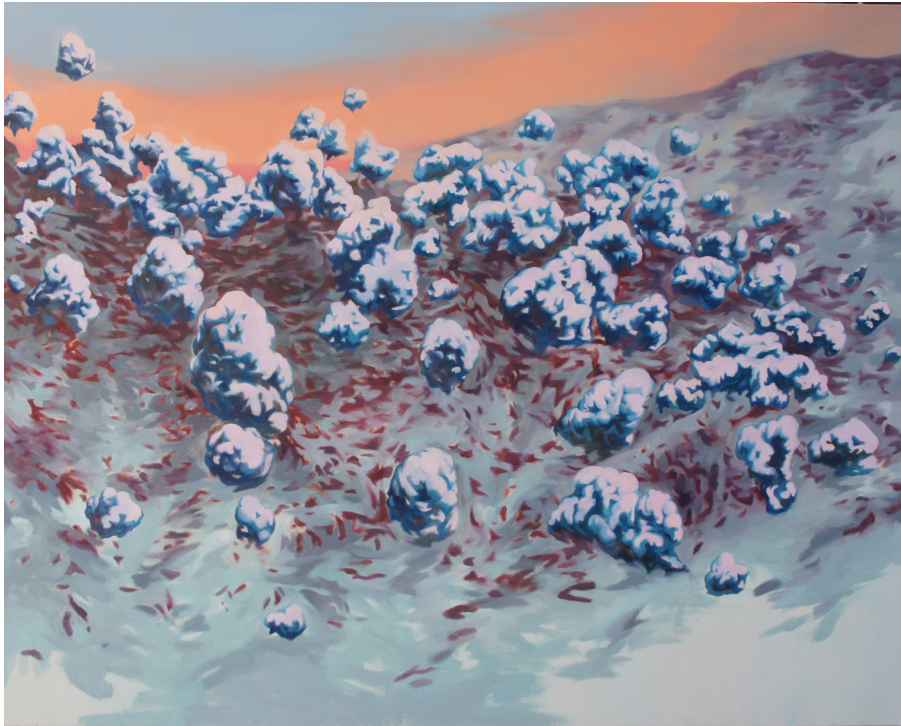
작업노트 중에서



[작품29] 「오해의 덩어리」 캔버스의 유채 72.5×51.0cm 2013

[작품29]는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 갈등의 이유는 각자의 위치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내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서로를 정확히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같이 지내온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각자의 시선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는 이 시간에도 각자 오해를 한 모습들로 공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 모습들이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이론에서 “모든 사물은 자기 자신의 특정한 시간을 갖는다.”¹⁵⁾라고 말하듯 우리는 각자의 시간 안에서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위치에서 이해 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15) 스티븐질,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1880~1918』 휴머니스트 2006



[작품30] 「해소되다-2013.8.11 AM 00:34」 캔버스의 유채 161.0×130.0cm 2013

많은 의문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꿈틀댄다. 세상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무지의 세상에 대한 갈망과 꿈이 함께 공존하게 된다. [작품30]은 무수히 많은 갈등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나의 의심과 의문들을 날려 보낼 수 있었다. 각자의 인간들이 가진 어쩔 수 없는 개별성을 이해하고 공존해 살아야 한다는 결과를 남긴 채 부정적 감정들을 멀리 날려 보내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였다. 세상에 대한 무차별 의심과 부정적 인식을 날려 보려한다.

작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표현이 점점 간결해진다. 오히려 작업은 풍경에서 드러나 상태를 넘어서 그 현상에 집중한 본인생각과 좀 더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표현이 점차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내면은 보이지 않는 공간이므로 구체적으로 표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IV. 결 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본인이 이 그림을 왜 그리고 있는지 파악 할 수가 없었다.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목적은 있었으나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도출해 내야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었다. 하지만 본 논문을 통해서 본인을 멀리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니 그동안의 작업들의 의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것은 자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본인의 마음을 지켜보는 일이 너무도 힘들었다. 시간이 과거로 돌아갈수록 지난날의 치유되지 못한 행동과 생각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나로 오기까지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야 했다.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 라는 말이 있다. 일체의 제법(諸法)은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의 나타남이고, 존재의 본체는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일 뿐이라는 뜻이다. 곧 일체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일컫는다.¹⁶⁾ 이와 같은 말처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도 세상도 달리 보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본인은 줄곧 작업이 너무도 자의적인 형식이어서 마치 작가가 배설을 하듯 내질러놓은 감정들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나에게 많이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느낀다. 그 상황을 고찰하는 작품들은 작가 자신을 바라다보는 계기가 되었고 감정의 표출로 회복된 마음은 더 넓은 시선을 마련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도출을 낳게 했다.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

16) [네이버 지식백과] 《화엄경(華嚴經)》의 중심 사상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 (두산백과)

나는 수많은 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나의 작품을 통해 자유로운 시선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또 타인을 이해했으면 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 그 동안의 발자취를 그려볼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자신과 세상을 결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본인은 인간의 경험과 반응들에서 나온 이 창작물들을 어떠한 경계로 만들어 옹고 그림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내가 누구이고 또 어떤 느낌인지 파악하고 수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적공간의 표현을 통해 자신이 무수히 많은 자로 설명할 수 있는 넓은 의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작업을 통해서 나는 그 가능성에 대한 것도 그리고 그 무궁무진한 인간의 감정 속에서 창조되는 세계를 경험하였다. 본인은 앞으로의 작업을 통하여 아직도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을 내적 세계를 통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참 고 도 판

[그림도판1] 에드바르 뭉크, <도로위에 내린 눈>, Oil on canvas, 80 x 100cm, 뭉크미술관, 1906

[그림도판2] 에드바르 뭉크, <불안[Anxiety]>, Oil on canvas, 94 x 73cm, 뭉크미술관, 1894

참 고 문 헌

- 김정규, 『게슈탈트 심리치료 ; 창조적 삶과 성장』, 학지사, 2006
- 롤프 스테너센, 에드바르트 몽크, 눈빛, 2003
- 루돌프 아른하임, 『시각적 사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 루이빌레, 『형이상학』, 한길사, 1999
- 리처드 래저러스, 『감정과 이성』, 문예출판사, 2013
- 송인섭, 『자아개념』 학지사, 2013 p.25- G. H. Mead.
- 스티븐킨,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1880~1918』 휴머니스트 2006
- 아서 단토, 『일상적인 것의 변용』, 예술철학, 한길사, p.30
- 오창호, 『사회심리와 인간소외』, 푸른 사상, 2005, p.65
- 은경선. 자아정체성에 대한 시간과 공간 표현연구, 2011, p.3
- 이모영, 『미술의 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지각적 경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선
문대학교, 2009
-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 천시아,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상태』, 정시세계사, 2012
- 최범식. 『심상치료의 이해 및 치료이론』, 시그마프레스, 2009, p53
- 최소희, 내적자아의 인지를 통한 상징적 이미지 연구, 2013
- 칸딘스키,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미술책방 2000
- 홍선미, 마음치유의 탐색적 연구 : 마음의 양태들과 Le Père의 이미지의
연구. 제66집 (2012년 봄) pp.157-192, 2012
- F.W.J.셀링, 『조형미술과 자연의 관계』, 책세상, 2002
- John P.Hewitt, 『자아와 사회』, 학지사, 2001
- R.G.콜링우드, 『상상과 표현』, 고려원,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internal space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emotion

-centering on the author's work-

Han, jeong hee

Dept, of Western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analyzed working contents and expressive form by focusing on this researcher's work exhibited in 「Collection of emotion」 before the requirement of master's degree among the works expressing internal image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emotion based on works done from 2010 to 2013.

Art is to find and analyze invisible essence and show the truth. It recreates and express emotional and creative desire through his/her own sensory action, shows the latent and invisible world in human's inside and draws internal world.

This research let him/her watch hidden ego of inside, which couldn't be recognized by himself/herself, through the results including internal image and furthermore, arranged processes for developing to positive image.

For human, experiences of childhood make lots of effects on the judgement of internal value or life. During the childhood, the existence of parents nominates concrete 'others' and draws lots of values in relationship with them. As unlimited experiences and thoughts of life make himself/herself, others met in life are very important. The effects on relationship with others who are family and members approach everywhere of standpoint for the life,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status. His/her work is to find identity of ego. Through the journal, there were lots of doubts, pains and conflicts for others and ego. Work is also to let him/her reflect on himself/herself in deeply internal loneliness and observe silently as keeping a journal. Therefore, conversation for himself/herself is the frankly internal confession, place to solve and observe unsolved internal subjects conveniently and space to show individual thoughts.

The subject expressed in this work shows the world of erupted emotion through the natural shapes by expressing the eruption of internal latent emotion. And, natural shapes make internal landscape and it is completely observed in the nature by listening to the internal sound carefully. And, it's the world organized and expressed by essential selection of his/her artistic will and independent expression will for internal feeling.

This research intended to find the way to endure confused emotion, depression and uneasiness and advance self-treatment and recovery for my expression of internal space through the working activity. And, it became an opportunity to reinterpret recognition and value and be

matured through the work. While preparing this thesis, this researcher watched my inside which couldn't be felt during the work more, so decided to possess positive inside. This thesis was an opportunity to watch inclusively and this researcher is very thankful for the opportunity.